사라진 5523건…경찰·구청 불법주정차단속 '진실게임'

광주경찰, 올 1만6082건 과태료 부과 의뢰 공문… 구청선 "1만559건만 받았다"

광주 경찰이 구청에 보낸 5000건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통보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이 광주 전역에서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정차 차량 5000건에 대해 각각 사진을 찍어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사연일까.

1일 광주 5개 경찰서에 따르면 각 경찰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9개월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운전자 없는 차량 1만6082건을 적발,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땐 범칙금 스티커를 끊지만 운전자가 없을 경우 현장 사진을 찍어 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처분 의뢰 공문(고발조치)을 발송한다.

이렇게 보낸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는 ▲동부경찰 3388건 ▲서부경찰 3706건 ▲남부경찰 1492건 ▲북부경찰 2080건 ▲광산경찰 5416건 등으로 1만6082건에 이른다.

하지만 5개 구청이 경찰에게 접수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의뢰 건수는 ▲동구 1321건 ▲서구 1318건 ▲남구 1103건 ▲북구 1577건 ▲광산구 5240건 등 1만559건에 불과하다. 경찰 통보 건수와 무려 5523건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9월까지 231차례 합동단속
경찰서별 실적 경쟁 치열
누락보다 '부풀리기'에 무게

두 기관 자료를 대조하면 서구가 2388건으로 가장 차이가 많고 동구(2067건), 북구(503건), 남구(389건), 광산구(176건)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대로라면 어느 한쪽에서 실적을 크게 부풀렸거나 아예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주정차 고발건수 (2013년1월~9월)

경찰서	의뢰건수	격차	구청	접수건수
동부	3388	2067	동구	1321
서부	3706	2388	서구	1318
남부	1492	308	남구	1103
북부	2080	503	북구	1577
광산	5416	176	광산구	5240
총계	16082	5523	총계	10559

현재까지로는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각 구청과 경찰서는 9월 말까지 모두 231회에 걸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는데, 각 경찰서별로 실적 경쟁이 이뤄지면서 담당 경찰관들이 구청과 합동으로 적발한 실적까지 자체 고발 건수에 포함시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각 경찰은 지방청 지시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경찰서별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매주 보고 했고 경찰서별 현황이 공개되는 등 실적 경쟁이 치열했다. 1~5월까지는 경찰 성과 평가 항목에 포함, 실적에 반영되기도 했다.

광주 A구청 담당 공무원은 "각 기관에서 보낸 공문을 허위 기재할 경우 징계를 받는데, 고의로 누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 면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 합동단속 실적을 포함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구민 헬스데이' 1일 광주시 남구청 1층 강당에서 열린 '남구민 헬스데이'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수지침 등의 진료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캠퍼스 유기견' 공포

'공대 백구' 등 개들 떼로 다니며 위협
포획 힘들어 '골치'

전남대에 '개조심' 팻말이 세워질 처지다. 학생과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만큼 큰 유기견이 출현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대는 급기야 북구청에 "제발 포획해 달라"는 협조 공문까지 발송하며 피해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공과대를 주 무대로 어슬렁거려 '공대 백구'라고 불리는 유기견 등 대형 개들이 무리지어 캠퍼스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 백구'라는 별칭이 붙은 개는 길이 1m, 몸무게 20㎏에 이를 정도로 커 학생들과 학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다.

'공대 백구'라 불리는 유기견. 길이 1m, 몸무게 20㎏에 이를 정도로 커 학생들과 학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인문대에서 백도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개가 미친듯이 쫓아왔다", "저녁에 산책나온 애완견과 서로 물어 뜯고 난리가 났다"는 제보성 글이 홈페이지에도 잇따랐다.

119와 북구청, 전남대 등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포획에 나섰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않았다. 15차례의 '시도' 중 실패한 사례만 8번. 그나마 10마리를 포획하긴 했지만 대부분 강아지 크기였다. "마취 주사까지 썼는데 주사 바늘이 꽂힌 채 도망가더라"는 후문도 퍼져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전남대는 최근 그물망 총까지 구입해 포획 작업에 나섰지만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다. 동물보호소가 생포한 동물만 수용하고 있는데다, 환경단체 반발, 학교 이미지 등을 이유로 사살을 고집하기도 힘들다.

전남대가 지난달 26일 북구청에 공식적인 포획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구청도 전문 포획기술과 인력이 없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대강 공사수주 사기 50대 구속

나주경찰은 1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1년 7월께 부산 자신의 사무실 등지에서 전남 지역의 홍수조절 댐 공사와 관련 토사 채취·반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광주 학생 3명 중 1명 "학교가 감옥같아"

교육시민단체 123명 설문
"재미없는 수업 가장 힘들어"

광주지역 학생들은 '재미없는 수업'과 '어려운 교과공부'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시민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8월 말부터 10일간 광주지역 학생 123명 등 전국 81개 초·중·고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생활실태 조사를 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 3명 중 2명은 '재미없는 수업'(68.4%)과 '어려운 교과 공부'(61.5%)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42.7%),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취미생활을 못하는 것'(38.5%), '생활지도·교칙에 대한 불만'(21.4%), '어려운 집안형편 등 가족문제'(9.4%) 순이었다.

또 3명 중 1명(36.1%)은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12.3%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3명 중 1명(34.2%) 꼴이었다.

그러나 광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실태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 욕하는줄 알고 때렸는데…"

광주동부경찰, 20대 상해치사 영장… 시신 유기까지

광주동부경찰은 1일 술에 취한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모(29)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9일 새벽 2시35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A노래 홀 인근 앞길에서 염모(42)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날 A노래 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염씨가 혼잣말로 욕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남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술만 취하면 길에 눕고 택시기사 폭행

쌍나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도로에 드러눕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창행.

○…1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오모(59)씨는 지난달 2일 오전 8시10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최근까지 9회에 걸쳐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오씨는 지난해 같은 죄로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0일 만기출소하자마자 주민들을 또다시 괴롭혀왔는데, 경찰은 오씨가 여성 홀로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거나 군청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 /영암=대성수기자 dss@

동양의학 수강생 모집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원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한의사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 · 뜸기초,경락경혈,침구치료),한방기초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혈학 등
공개강좌 광주35기) 10월 11일(금) 14시
위치 : 쌍촌역 2번출구에서 운천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 과정
◉ 교과내용 :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씨기혈 등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의사시험응시가능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침구학 전문교육기관
CH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사 | 원 | 모 |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츄레스(신입 및 주임급)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